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464호

서기 2004년 3월 10일 (음력 2월 20일) 수요일

29

법공양 페이지

태초가 무엇인가요?

문 주위에서 '태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 설왕설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

답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타의 이름이나 형상을 보고서 기도하고 비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정말로 지나야 되고요. 종교라는 건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행상이 여러분의 형상과 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도 틀이 아니고 생명도 틀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하다는 겁니다. 처음 발심해서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방편으로 모셔 놓고 '당신하고 틀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될 텐데,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전부 이름과 형상을 믿으라고 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된다면 지금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겐, 각자 여러분한테는 한 번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남한테 만날 빌어야만 하니까, 얻어먹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얻어먹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람, 흙, 먼지, 물이 한데 합쳐져서 자꾸자꾸 모여 보세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따뜻한 온기가 나오겠죠? 그게 불입니다. 생명! 태초에 생기는

생명입니다. 그게 가공이 돼 있기 때문에 따뜻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생겨나 겁니다. 근데 다 생기고 나서 제일 나중에 생김새가 사람입니다. 왜냐. 미생물로 생겨서 그 미생물이 형성되고 진화되고, 진화되고 형성되다 보니까 제일 나중에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 가지 배울 게, 미생물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일 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이렇게 진화돼서 사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넓게 보면 전부 내 아버지 아님이 없고 내 어머니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에서 첫째 살생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두가 전자에 내가 사람이 되기 이전에 나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으니까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전자에 미련했을 때의 못났던 그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두 자기 아님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자기한테 스스로,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 스스로 인정을 받고 스스로 '착하구나, 착하구나. 참 나는 정답이지 착하구나.' 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멱케

되고 스스로 살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는 지수화풍입니다. 사람만 지수화풍으로 된 게 아니죠. 미생물에서부터 꼭 인간까지 전부가 지수화풍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수화풍으로 돼 가지고 지수화풍을 먹고, 또 지수화풍으로 돌아갑니다. 아때요? 그렇게 예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수화풍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보세요. 죽을 때는, 지수화풍이 딱 벌어졌을 때는 자기 가는 자기가 찾아갑니다. 바람은 바람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흙은 흙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물은 물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불은 불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남은 거라고는 바로 자기 영원한 생명의 근본 자체만 남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은하계 별성이나 마음의 별성이나 똑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나의 별성 그 자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과 내 육신과, 그렇게 친다면 물질계의 나와 정신계의 나가 틀이 아니게끔 불신이 되는 거죠. 바로 정신계의 별성이 바로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의 그 모두를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안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한 생을 통해서 세세생생 끝없는 세상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자유권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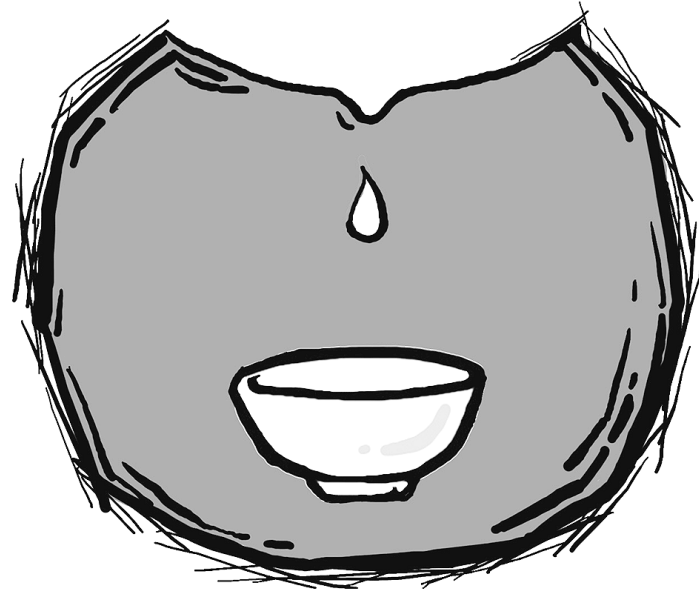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 생을 통해 끝없는 세상 맛볼 수 있어야

돌아가신 환자들을 위해서

문 미국에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불자인니다. 남편의 전공이 노인 내과여서 개업을 하고 제가 병원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노인 환자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도 저희와 인연이 맞아서 남편의 손을 거쳐서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라도 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못 고치는 환자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관해야 할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환경에 따라서요.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옛날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주 깊어요. 이것은 이 마음공부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한생각에 할 수가 있어요. 또 두번째는 음식을 그렇게 차려 놓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세번째는 상대방에서 그 거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쩌나 하는 생각이, 그 부질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언짢거든요. 좋지 않죠, 섭섭하고, 그러니 의사로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한생각으로 하세요. 한생각으로 그냥 '주인공, 너만이 좋은 데로 인도할 수 있잖아, 너만이 요다음 세상에 고생 안 하고 살게끔 할 수 있잖아.' 한다면 그대로 재작 그제 법이 됩니다.

그리고 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러주기를 '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의식 속에서 그러는 거를 다 주인공에 맡겨라.' 하고 요렇게만 일러 주시고, 의사도 '주인공, 너만이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면 좋아질 겁니다. 그게 결부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자리는 놓어도 놓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허공을 다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로 결부가 되면 결부된 그 자체가 바로 거기에서 또 결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낫게 되는 거죠. 모두 틀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속도를 알고 싶어요

문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 공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실 물리학을 하게 되면 참나를 찾을 수 있는 게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설법하시는 도중에 보면 마음은 빛보다 빨라서 아니 가는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음이 빛보다 빠르다는 그 얘기보다도 무한하다는 거, 순간적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생각인지요?

답 왜 빛보다 빠르냐 하면 빛은 가다가도 착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 그럴까요? 빛은 가다가도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무한해서 어디고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가고 울이 없이 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알며, 남의 말을 듣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며, 또 마음의 눈으로 다가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신통을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신통을 벗어나게 되는 거는, 즉 말

하자면 '대너를 통해서 누진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천체물리학과 되고 심성의학도 되고 또는 심성과학도 되고, 아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번 몸으로 비유할 때 몸 하나에 수백이나, 헤아릴 수 없는 모습과 헤아릴 수 없는 생명과 헤아릴 수 없는 의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 몸중에는 집합소밖엔 안 되는 거죠. 생명들의 집합소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한 개체지요.

그래서 지구로 비유한다면,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면 죽는다. 지구 바깥으로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몸 하나를 가지고 지금 모두 연구해 나가면서 알아보면 내 몸이 지구와도 같고 우주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관한 건에 있는 게 생명의 근본, 즉 별성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북두칠성이거나 이런 것이 어떠한 관계로 생겼는지도 알 수 있구요. 그러니까 모든 육성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육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심안으로 보는 사람들은 차원이 조금, 또는 혜안으로 보는 사람 차원이 더 좀 높고, 법안으로 보는 사람 좀 차원이 더 높고, 아주 높은 사람은 불안으로 본다. 이런 문제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는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소리를만 하게 돼 있고요, 높으면 높은 대로 소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맛을 못 보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는 생각이 안 나듯이, 우리가 이 소리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마음공부를 해 가다 보면 '아, 이런 이거로구나.' 하고 자꾸자꾸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

우는 거만 가지고가 아니라, 배우면 배우는 대로 넘어지는 거는 마음입니다. 덮어놓고 마음을 넓힌다고 해서도 아니 되니까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학생의 것으로 만드세요. 모두가 틀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 스님,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직을 갖게 되고 이러는 것이 저만의 사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수가 되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도 좋겠지만 이미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그 공부를 하는 시간에 차라리 병원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그거는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로서 보시를 하는 거보다도 마음의 보시를 하는 겁니다. '일체제불의 노력' 있죠? 한마음을 음파를 통해서 전 우주에 전해지도록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음파를 통해서 마음들이 전부 개선이 되고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런 말을 했죠. 물질 하나를 보시하는 거보다도, 고건 당장 쓰고 나면 고만이고 먹고 나면 고만이니가 물질보시보다도 무주상 보시를 공심으로서 한다면 그거는 끊어지지 않는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라는 것이 너무도 크고 광대해서 오히려 무주상 보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요. 그저 남들이 보게 내가 '이거 얼마를 시주했다. 얼마를 했다.' 이런 것만 모두 생각들을 하시는데 힘이 없이 해야 그게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지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미 무주상 보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계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러 가면 그 물건이 값어치대로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온단 말인

물질보시보다 무주상 보시를 공심으로 한다면

끊어지지 않는 삶 얻을 수 있어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육바라밀 행을 하려면 내 마음부터 정립해야

29면에서 계속

니다. 그렇다면 가게 주인에게 돈을 준 게 없고 그 사람도 돈을 받은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받고 주고 했으니까 피장파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쫓으면 쫓 대로 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더 이상의 값어치를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 이상 거를 받지 못해요. 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입으로 구원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래를 한마디 하는데 그냥 허거나, 그림을 한 장 그렸는데 그냥 그렸다가 나 이런다면 그건 산 음성이 되지 못하고 산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계와 물질계가 틀어지게 해서 음성을 낸다면 그 음성이 가사에 의해서, 그 가사의 용도에 따라서 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건질 수 있느냐. 남을 아름답게 하는 가사나,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가사나 하는 겁니다. 가사에 따라서 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의 말로 해야 할 수가 없는 공부입니다. 세세생생에 끝난 데 없이 말입니다. 우주가 끝이 없듯이 우리가 사는 것도, 진리도 그렇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우리 아버님께서 교도 소에서 나오셔 야 할 텐데 나오시질 않



그림 · 최주현

전부 같이 통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으니까 서명을 받아서 진정서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한생각이라면 저절로 나올 텐데 멧멧하다면 왜 비굴하게 그것을 받아서까지 진정서를 내느냐." 그랬습니다. 그건 뭐 이름을 대면 안 되겠으니까 그냥 말하겠습시다만, 전직에 부모하게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그러다보면 모든 게 우리나라의 수치거든요. '조금 아쉽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전 세계로 볼 때도 참 수치지요. 그래서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 거와 같이 한생각이다. 이게 말로는 한생각이라고 아주 쉽게 하지만 한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광대무변하고 묘법인지 몰라요. 음파가 그대로, 얼른 쉽게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전부 나가지 조립을 하거든요. 마음을 조립을 해서 틀어지게 응신이 되면 그 마음들이 다 풀리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스님네들을 우습게 보고, 그냥 마구 해 대는 수가 많거든요. 아무 리 말 못하는 돌맹이라도 내가 공부한 대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공부했었다면 꽃나무도 전부 같이 통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물에는 용신이 있고 산에는 주산신이 있고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 통해야 남이 아니고 서로가 조직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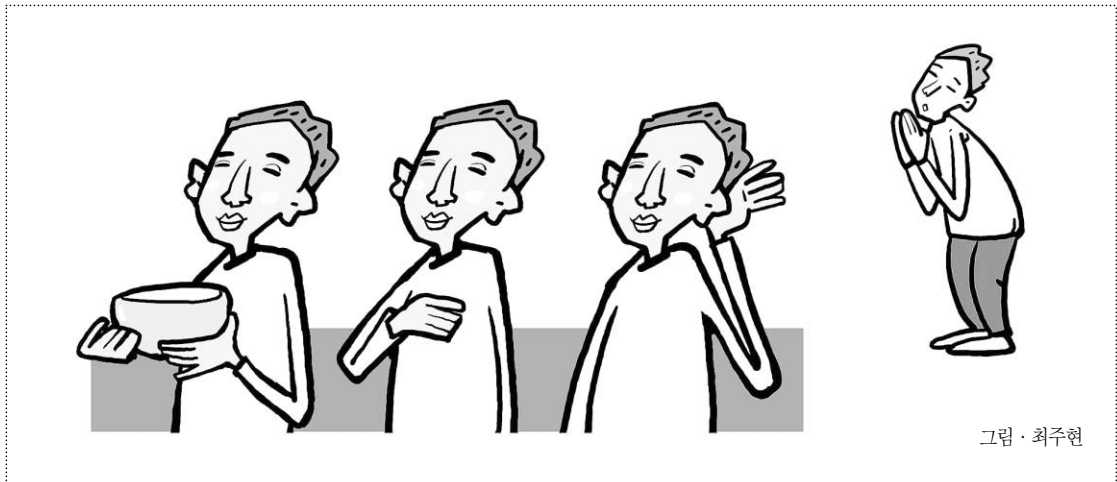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주 전체가 조직적인 진리로서 에너지 하나 없이 틀림없이 진행해 나간다 이런 거죠. 질서정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질서정연치 못하니까 질서정연치 못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득이 없고, 자기를 자기가 망치고 돌아 가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하는 봉사라 해도 무주상보시가 되어야 합니다.

육바라밀을 완성하려면

대승불교에서는 육량과 고통으로 얼룩진 사바세계에서 해탈의 경지를 상징하는 피안의 언덕으로 넘어설 수 있는 수행법인 육바라밀을 불자라면 꼭 실천하도록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야 육바라밀을 생활 속에서 온전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요.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벌써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겠다' 하고 자동적으로 마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겠다고 하기보다도 인간이 되었으면 벌써 스스로서 자기 가 하는 행이 육바라밀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한데 합쳐서 육바라밀 하면 그냥 간단하지마는 우리 마음을 빼놓고는, 육바라밀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면 보시를 해도, 무주상 보시와 유주상 보시가 들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무주상 보시라고 말하기 이전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그릇 떠 줬어도 보시요, 마음을 잘 내 줬어도 보시요, 말 한마디를 잘 해 줬어도 보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벌써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처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또 부처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보살행을 해야 하고, 보살행을 해야 한다면 상구보리 하회중생을 그대로 자기가 행할 줄 알아야만 이 이게 육바라밀의 근본적인, 마음 자체는 하나지마는 마음 내는 거는 수천수만 가지로 낼 수 있는 그 마음을정립해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육바라밀을 실천 하라고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등돌로서 사는 이런 분위로, 물질 분위로만 산다면 육바라밀의 행을 못합니다. 우리는 남을 이익하게 하지 않고, 남의 걸 뺏으려고 하고, 부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만약에 두뇌로 통해서 나가는 그 행이라면 그대로 보살행인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 돈에도 팔리지 않고 태산 같은 물질에도 팔리지 않는가 하면, 어떠한 이름에도 팔리지 않는 그러한 철학을 가졌다면, 그러한 원심력을 가졌다면 그대로 보살행이에요. 하나하나가 전부 보시 아닌 게 어딨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래를 한다 무슨 국악을 한다, 설법을 한다, 무슨 과학이다 무슨 철학이다, 무슨 정치다 무슨 공업이다 경제다 국방이다 이런 것도 전부 거기에 합쳐서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식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고 지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으로 나누는 거지, 정신력으로서 마음을 정립해서 나간다면 그건 그냥 육바라밀 보살행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그대로 보살행이죠.

그래서 물질 분위로 나간다면 육바라밀을 행할 수가 없고, 물질 분위가 아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와 한생각의 무주상 보시나, 하여튼 마음을 한데 합쳐서 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행하는 모든 것이 전부 보시죠. 하지도 보시 아닌 게 없거든요. 자기도 중생이니까 자기 몸을 이익하게 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자기 몸도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이름이 없고 어떻게, 그럼 뭘 알겠어요? 내 가치관을 알고 또 우주를 알고 불교를 알고 부처님들을 알고, 전부 알고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각자 알고 있는 그 자체로서 행하면 그대로

어떠한 돈에도 팔리지 않고

어떠한 이름에도 팔리지 않는

원심력을 가졌다면 그대로 보살행

그게 육바라밀의 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 에 무슨 가타부타가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안 한다 한다가 어디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육바라밀 행을 하려면 내 마음부터 정립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립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의 철학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도 물질과학이라는 것을 철학으로 혼합을 시키면 바로 지금 현재 육바라밀의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나가는 것이 철학이라면, 만약에 물질 분위로 물질을 만드는 과학이라면 혼합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결합된 더욱 좋지만 그래도 정신력과 지금 현재의 물질력에 한데 합쳐서 우리가 행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이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신력으로 산다 하면 마음을 정립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보시든 지계든 인욕이든 다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에도 팔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정립이, 부동한 마음의 정립이 됐다면 거기에서 아니, 육바라밀만 나가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다 나가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벌써 눈 간 데 코가 가고, 코 간 데 귀가 가고, 귀 가는 데 맛을 알게 되고,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한마음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도 물러나는 마음도, 보는 마음도 듣는 마음도 또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도 다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립을 하면 스스로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기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귀의 심보하움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런생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난 세사와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일들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고해라고 불리우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기없는 중생들을 위해 산승이 기도 와 제를 올리고 법시술로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고통을 부른다. 번뇌와 업과 고통의 이 세가지는 같이 굴러서 한이없고 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 한다.

- 굶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자식간에 원인이 끼여 고통속에 사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에 재수가 안되고 이사매매가 막혀 궁핍하신 분
- 평생 재복과 관운이 없어 본인의 관상과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할 못했답니다. 인적 인연이 닿지않는 분을 혼자서 고민 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인연이 되시는 분은 직접 오셔서 모든 암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겁의 큰일을 얻는 흥운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생들의 앞길을 스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관음사 주지 고통합장**
011-715-6333
불사에 어려움이 많은 비구, 비구니 스님이나 불자님 도인비밀 방송 전수함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지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가 풍부하며, 건강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약 3Kg
- 지름: 20~30Cm
- 원산지: 태국
- 태국에서 영아 40°C 급방(직송)에 냉장상태로 보관중
- 가격: 1개 35,000원
-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현제 백의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불자기업 협대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농협 10823-56-156761 예금주: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당 노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한적 의과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는 할랄인증 식품입니다.

한적 의과학 교수 | 약력
-한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한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한적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한적대학교 일반·외·노·산도연구센터 센터장

한적 약학팀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릎, 제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체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노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의인 사망률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환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일어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월분 258,000원

- 개발의사 약력 -
▶ 1941년 2월 5일 경희 상주 출생
▶ 1963년 홍익대학교 의과대학 약학부 졸업
▶ 1968년 홍익대학 약대 교수 생활
▶ 현재 (대한약사) 보건 고령의학, 제1차대전환학 연구 김 한방(한방)연구소 연구실 연구실 연구실
▶ 재직 : 21세기 민족 한방 의료비판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